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지속적인 청구건수, 7주째 연속 상승
- Bloomberg: 미국인, 경제 관련 행복지수에서 평균 이하 점수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매각, 일자리 데이터보다 주식에 더 큰 이슈

[뉴욕]

- Bloomberg: 뉴욕시 임료대 최고치에서 둔화... 그러나 둔화세 크지 않을 듯

[원자재]

- Bloomberg: 앞으로 유가 배럴당 1백불은 힘들다
- WSJ: 식자재인 올리브 오일 가격 급등

[미국 생활]

- WSJ: 재택 근무가 미국인 구매방식을 바꾸다
- WSJ: 미 인구 조사국, "미국 인구 2080년에 정점 찍고, 줄어든다"

[인공지능]

- Bloomberg: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들, "AI가 경제적 여파 준다"

[미중 관계]

- WSJ: 미국과 중국, 뒤바뀐 경제적 상황 속에 이번 주 만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메리칸 항공, 숙련 조종사 모집에 25만 불 보너스로 제안
- Bloomberg: 아마존, 식료품 배달 서비스 확장하고 슈퍼마켓 재개장한다
- TechCrunch: 리프트의 가격 인하 전략, 엇갈린 결과 보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tinuing Jobless Claims Rise for Seventh Straight Week

미 실업수당 지속적인 청구건수, 7주째 연속 상승

- 실업수당 청구를 계속하는 신청건수가 7주 계속 상승해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다.
- 지속적인 실업 청구 건수는 10월 28일 끝나는 주에 1백83만건으로 증가했다.
-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구인 수요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4일 끝나는 주에 21만7천건으로 하락했다. 4주 평균 실업 청구건수는 21만2천2백50건으로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Economy Scores Low on New Index Measuring Nation's Well-Being**미국인, 경제 관련 행복지수에서 평균 이하 점수**

- 미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프로젝트인 이 지수는 전통적인 경제 지수를 뛰어 넘어 미 국가들이 삶의 환경과 전망을 평가하는 지수다. 건강, 임금증가, 교육, 시민 참여 11가지 측정 항목이다.
- 이 행복지수에 따르면 미국인은 10점 만점에 4.91점을 기록했다. 즉,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기회와 낮은 가계 재정 회복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지수는 연방센서스국과 국립의학통계센터의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Bond Sales Are Becoming a Bigger Deal for Stocks Than US Jobs Data****미 국채 매각, 일자리 데이터보다 주식에 더 큰 이슈**

- 미 국채 경매가 주식에 끼치는 여파가 커지면서 금리 경로가 최근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 씨티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이래 국채 경매일(auction days)에 따라 양방향으로 약 1%씩 움직여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앞질렀다.
- 분석 대상이었던 22건 매매 모두 30년물 국채인데 주식의 후속 움직임은 월간 일자리 데이터 발표 때보다 국채 경매때 보다 더 컸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전형적으로 경제 상황과 연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는 월간 일자리 데이터보다 더 컸다.

Bloomberg 기사

[뉴욕]**Bloomberg: NYC Rents Retreat From Record Highs as Market Starts to Cool****뉴욕시 임료대 최고치에서 둔화... 그러나 둔화세 크지 않을 듯**

- 뉴욕시 아파트 임대 시장이 울여름 최고치에서 계속 둔화되면서 맨해튼, 브루클린, 일부 퀸즈의 임대료가 10월에 떨어졌다.

- 10월 맨해튼 새 임대 중간 월 임대료는 4천1백95불로서 9월보다 3.6% 떨어졌다. 한창 때인 7월과 8월에는 4천4백불이었다. 브루클린은 3천4백90불, 롱아일랜드시티와 아스토리아 등 일부 퀸즈의 경우 3천1백98불로 낮아졌다.

Bloomberg 기사

[원자재]

Bloomberg: Oil at \$100 a Barrel is Looking Less Likely After All 앞으로 유가 배럴당 1백불은 힘들다

- 올해 유가 가격이 빅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고 있다.
- 수주전만해도 기록적인 수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여기다 중동 사태까지 겹쳐 가격 상승 리스크가 커졌다.
- 그러나 벤치마크는 3개월만에 80불 아래로 하락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중국과 유럽 정유사의 수익 급감, 실물 화물 교역 침체, 미국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바뀌고 있다.
-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급, 점차적인 생산 증가, 그리고 수요 정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요 약세 펀더멘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이에 따라 4달러에 육박하는 휘발유 가격에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과 긴축 통화정책을 마무리 하려는 연준에게는 희소식이다.

Bloomberg 기사

WSJ: Cooks Beware: Olive Oil Is Getting a Lot More Expensive 식자재인 올리브 오일 가격 급등

- 올리브 오일은 다른 주요 식자재인 코코아, 설탕, 커피 원두와 함께 기상이 변로 인한 수확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가뭄으로 인해 올리브 오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많은 식당등에 여파를 주고 있다.
- 스페인은 보통 한해에 약 1백40만 미터톤의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데 올해의 경우 물 부족때문에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How Work From Home Has Reshaped What Americans Buy 재택 근무가 미국인 구매방식을 바꾸다

- 요지: 서비스로의 지출 변화가 대체로 끝나 미국인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상품에 더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 미 소비자들은 여전히 상품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말 소매업체들이 홀리데이 시즌 판매는 지난 2019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클것으로 보인다.
-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상품 지출이 전체 지출의 33.3%를 차지해 2019년 동월의 31.4%보다 컸다.
- 인플레이션 조정 9월 상품 지출은 2019년 평균 보다 20.4% 높은 반면에 서비스 지출은 7.6% 상승에 그쳤다.

WSJ 기사

WSJ: America's Population Projected to Shrink by 2100, Census Figures Show

미 인구 조사국, “미국 인구 2080년에 정점 찍고, 줄어든다”

- 오늘 목요일 공개된 미 인구 조사국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가 2080년에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미 인구 조사국이 향후 인구 전망에 대해 미국의 인구 감소를 예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또한 조사국에 따르면, 느린 인구 성장률로 인해 미국의 인구는 최대 인구 수는 3억7천만 명에 달할 것이며, 이후 이번 세기말에 점차 줄어들어 3억6천6백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미국의 인구가 수년간의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 그리고 그동안의 인구 증가가 상당수 이민에 의존했음을 반영한다.
-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제와 지정학적 입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Citadel's Griffin, Business Leaders Say AI to Change Economies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들, “AI가 경제적 여파 준다”

-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일을 변화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시타델의 창업자인 Ken Griffin은 생성형 AI가 머신 러닝의 차세대 기술이라면서, 생성형 AI가 미국의 기업에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할 것인지에 경각심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CEO인 Jeffrey Katzenberg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지출되는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말한다.
- GRO 인텔리전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Sara Menker는 머신러닝 기술이 전 세계 농산물의 모든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중 관계]

WSJ: U.S. and China to Meet as Shifting Economic Fortunes Alter Relationship

미국과 중국, 뒤바뀐 경제적 상황 속에 이번 주 만나다

-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이 중국의 부총리인 허 리핑을 이번 주에 만난다. 두 국가는 서로 뒤바뀐 경제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소비자 소비와 특정 산업에 대한 미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는 올해 3분기에 4.9%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깼다.
- 반면, 중국의 경제는 중국 부동산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고 있다.
-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틀간의 양국 회담에 대해, 미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거시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말한다.
- 미국의 관리들은 중국이 어떻게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고 있다.
- 미국의 우려는 중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독단적으로 금리를 낮춰 중국의 수출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merican Airlines Dangles \$250,000 Bonuses to Poach FedEx and UPS Pilots

아메리칸 항공, 숙련 조종사 모집에 25만 불 보너스로 제안

- 아메리칸 항공이 FedEx와 UPS의 숙련된 조종사를 급하게 모집하고 있다.

- 특히, 아메리칸 항공이 소유한 PSA 항공은 기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FedEx와 UPS의 숙련된 조종사에게 25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안하고 있다.
- FedEx는 이에 대해 자사의 조종사들이 그 제안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to Expand Grocery Delivery, Resume Supermarket Openings

아마존, 식료품 배달 서비스 확장하고 슈퍼마켓 재개장한다

- 올해 초, 아마존은 프라임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식료품 배달 테스트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마존이 내년에 더 많은 자사의 슈퍼마켓을 개장할 준비를 마치면서 더 확장된 배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쇼핑객들은 아마존이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느 매장이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마존 프라임 이용자가 아닌 경우 배달비로 4.95달러에서 13.95달러 비용이 청구되며, 이용자인 경우 6.95달러에서 9.95달러를 지불하게 되며, 100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달된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Lyft's price war with Uber yields mixed results

리프트의 가격 인하 전략, 엇갈린 결과 보여

- 우버와 경쟁하기 위해 승차 공유 요금을 줄인 리프트의 전략이 느리지만 꾸준한 수익 성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승차 공유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 어제 수요일 보고된 3분기 리프트의 수익에 따르면, 올해 리프트의 이용객 수는 분기마다 점차 증가했다.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리프트는 2천2백40의 이용 건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두 번째 분기 이용 건수인 2천1백50만보다 상승한 것이다.
- 총예약 건수(Gross bookings)는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다. 이는 리프트에 좋은 소식일지 모르나, 우버의 총예약 건수가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7% 증가했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다소 좋아 보이지 않는다.
- 데이터 분석 기업인 YipitDa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리프트의 가격 인하 전략은 리프트가 우버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우버는 8월과 9월에 잃었던 점유율을 가까스로 다시 확보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인플레이 진정에 연준 기여분은 몇점?... "후한 점수 못 줘"

WSJ "저축·소비·투자·GDP에 영향 미미... 뒤늦게 수요 타격할 우려도"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갔지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연준 조치와 인플레이션 하락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덕분이며 이는 연준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